

# 전북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도 농기원, 현장 시연 행사...익산·남원 등 7개 시·군 도입 이상 기온 등 '농장맞춤형' 정보 제공 농가 피해 최소화

전북지역에 농업 기상재해를 예측해 이를 사전에 알리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지난 1일 기상 및 작물재해 예측정보를 농가에 미리 알려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개발된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의 현장 시연 행사를 익산 시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상록관에서 개최했다.

전북은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익산·남원 등 7개 시·군에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1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공동 주관했다.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업인,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등 80여명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별로 상세한 기상 예측 정보와 재배 중인 작물의 생육상태를 고려·판정한 농장 재해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는 농업기상 서비스이다. 해당 농가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측된 재해 위험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대응 대책 또한 전달 받는다.

이 참석했다.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현장 시연이 진행됐다.

또 현장의견 청취 및 만족도 조사 발표 후 현장에 참석한 농업인 및 농촌지도 관계관의 이해 증진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도 이뤄졌다.



지난 1일 익산시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상록관에서 전북지역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현장 시연 행사가 열렸다.

김현정 전북도농업기술원 원예과 연구사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통해 이상 기상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농업기상 및 재해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군,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 신청자에 '순창사랑상품권' 10억원 어치 추가 발행 지급

순창군은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 신청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순창사랑상품권(사진) 10억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해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급은 앞서 20억원 규모로 발행한 상품권이 당초보다 빠르게 완판된 데 따른 것이다.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은 관내 소재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상품권으로 업소별 5만원 이상씩 총 1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사용금액 구간별로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예산 1억4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해 순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만 18세 이상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달동안(신청월의 전월, 전 전월)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매 짝수 달 10일부터 25일까지



신청금액은 최소 15만~50만원이며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지급 받는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권 금액은 최대 5만원이다.

구비서류는 인센티브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현금영수증이다.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다.

양병삼 순창군 경제교통과장은 "상품권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환급받은 상품권을 군민들이 다시 사용할 때 지역 상권에 대한 2차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 정읍시, 여행작가협회 회원 초청 팸투어

정읍시가 지난 4일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21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주요 대표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과 정읍시의 주요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태산선비문화의 중심인 무성서원을 찾아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고 신라 시대 대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현장에서 무성서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계획을 설명하고 여행작가협회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여행작가협회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정읍의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호남의 금강이라고 불리는 내장산을 찾아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사진> 2006년 창립된 한국여행작가협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된 전문 여행작가 단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팸투어에 참가한 여행작가들의 풍부한 감성으로 정읍의 매



력을 홍보함으로써 정읍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읍의 문화자원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호봉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한국마케팅프런티어' 대상 수상

고창군이 한국마케팅학회가 선정한 2019년도 '한국마케팅프런티어'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마케팅 프런티어대상은 한국마케팅학회 소속 650여명의 교수 회원들이 기업의 우수마케팅 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 전파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993년 처음 제정됐다.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과 고분군 등을 통해 '한반도 첫수도 고창'이란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냈다.

군은 농생명 식품산업과 역사문화 관광 분야의 마케팅을 강화해 '대한민국 먹거리 창고', '힐링 성지'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고창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는 영화 돈에서 주연배우의 별명으로 등장하며 흥

보호과를 거뒀다.

또 멜론은 전국 최초 온라인 경매를 시도해 주목을 끌었다.

아울러 적극적인 기업마케팅으로 매일 유업, 하이트진로, 국순당 등 국내 식품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각종 드라마(녹두꽃, 나의나라, 동행 등)와 패션화보·아이돌 뮤직비디오(공유, 러블리즈 케이 등) 촬영 등을 지원하면서 지역 곳곳의 숨은 명소들을 알려냈다.

군은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학술대회에 공식 초청돼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마케팅에 날개를 달다'의 발표를 진행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됐다

###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역사경관 회복 등 250억원 지원

익산시는 문화재청이 실시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익산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面) 및 개별 등록문화재(點) 10개소'를 대상으로 응모, 최종 선정됐다.

이 곳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문화재(등록문화재 제763-1~10호)로 등록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개별문화재 중심의 단선적·편면적 보존관리에서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가의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협의 등을 통해 준비해 왔다.

또 서면평가에 통과한 후 현장평가에 대비해 근대문화자산을 추가로 발굴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는 등 주민과의 협업을 진행해 왔다.

등록문화재 제763호가 된 '익산 숨리 근대역사문화공간(주현동·인화동 일대 2만1168.2㎡)'은 1899년 군산항 개항, 1914년 동이리역 건립 등을 거쳐 변화했던 숨리시장 일대다.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과 바느질거리 등 당시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이 모여 있어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다.

이 곳은 1919년에 4·4만세운동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 공간 안에 있는 '익산 구대교농장 사택', '익산 구신신백화점' 등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문화재 가치가 뛰어난 10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됐다.

선정 사업지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 관련 사업을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최대 250억원이 단계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남원시, 복지수요 증가 대비 행정조직 정비

남원시가 복지수요 증가 등에 맞춘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남원시는 지방조직과 관련된 대통령령 개정과 맞물린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비대해진 안전경제건설국을 경제농정국과 안전건설국으로 분리한다.

또 총무국 소관이었던 환경과를 안전건설국으로 이관한다.

기존 권역형으로 설치됐던 1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은 모두 기본형으로 전환

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뒷받침한다.

또 현장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불우가정을 최소화,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와 관련 시는 5월부터 직제 및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수차례 토론회 자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을 끝냈다.

이에 따른 정기인사는 내년 1월 중에 진행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6.25

## 한국전쟁

잊지않겠습니다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 전남연합유족회 제5회 | 장성유족회 제10회

# 합동추모제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12시(중식) 13:30~16:00

**장소** | 장성군 군민회관

**\* 미신고자 신고 ▶ 각 시군 유족회**